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0월 9일 (제117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녹이 쇠를 먹는다

작금의 정치권을 보자니 문득 이 말이 떠오른다. “녹이 쇠를 먹는다.”

자고로 쇠에서 녹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녹이 지나치면 녹이 쇠를 먹어치운다. 못쓰게 만든다는 것이다. 마치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지나치면 술이 사람을 먹어치워 병들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거짓말이 진해질수록,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거짓말이 그 사람을 먹어치운다. 양치기 소년이 그랬다. 혼자 양치는 것이 심심해서 했던 거짓말이 쌓여 소년을 먹어치웠다. 사울도 그랬다. 그저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고 변명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자신의 왕위는 물론이요, 목숨까지 빼앗아 버렸다. 사람이 눈덩이를 굴리지만, 눈덩이가 커지면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녹이 슬기 시작하면 자각해야 한다. 어서 녹을 제거해야 한다. 방치하면 그것으로 인해 명예가, 재물이,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감기일 때 손을 씻어야 한다. 그때를 놓치면 우습게 여긴 감기가 폐렴이 되고, 합병증이 와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22). 정말 작은 악이, 지극히 작은 죄가 구르면 그것에 눌러 죽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인식되거든 바로 거기서 돌아서고 회개해야 한다. 다윗처럼.

녹이 쇠를 먹기 시작했는가? 결단, 개혁이 필요하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3~47).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않으면 녹이 슬고, 더 방치하면 녹이 쇠를 먹고 만다. 그러나 늘 성령충만함으로 영·혼·육의 연장을 갈자!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부여잡는 의연함이 있기에 연약하나 넘어지지 않고 약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계속되는 1체육관의 행사 관계로 2체육관 예배가 연속되는 상황에 다가오는 주일은 그나마 88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2년 넘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느 교회나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기뻐하는 목사님의 의연함은 지난 38년 목회에 하나님과 함께한 수많은 경험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라 믿는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홍해를 보지 않았습다. 즉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나 역시

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지금의 88체육관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38년 목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생활처럼 항상 물 위를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까지 항구여일하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주의 길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 교단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기대한다 (인천교회 주일예배광경)

체육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올림픽공원 시절에 경험한 터이고 항상 물 위를 걷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늘에 이른 예수중심교단이기, 이것이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이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배운 믿음이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

방송실에서 만난 목사님은 그런 와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배 처소가 없는 상황 앞에서 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누가 알겠니?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

38년 목회 동안에 문제를 친구삼았습니다. 문제를 징검다리 삼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라고 믿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림픽공원에서 88올림픽 기념행사로 사용할 체육관이 없다 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큰비가 내려 수해가 나는 바람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축하한다는 국가행사가 잡혀 역시 예배 처소가 없었을 때,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뿐입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나오기 전에는 추운 겨울, 공터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트럭을 단상 삼아 올라가 핸드마이크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

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왔기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믿습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신6:10).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예배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반드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렘33:3)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7:14)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지난 수요일에 배 때 저는 탄산수와 생수, 자갈과 옥토를 비유로 싸우지 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며 그 영상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다툼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치인 간의 다툼, 노사간의 다툼,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투면 안 됩니다. 싸워서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싸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육축과 금은이 많았습니다. 조카인 롯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정된 땅에서 많은 가축을 기르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놓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될 것을 아는지라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13:8~9). 아브라함의 제안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투지 않기 위해 갈라서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싸우면서 굳이 같이 살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함께 사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나 기업이 잘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고 하셨습니다. 물이 조금씩 새 때 막아야지, 방축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국토의 1/3이 잠길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피해를 초래한 이유는 댐과 제방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댐이나 제방시설이 무너지니까 사람도, 재산도 남김없이 다 휩쓸어갑니다. 싸움도 그렇습니다. 싸움하다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서 다 잃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갈라서는 것이 낫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요.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과의 다툼이 잦아 그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 늘 마음에 쓰였습니다. 더욱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건과 더불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시켜 에서와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참사를 막았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면 가인과 아벨 짝이 났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총회장 이초석 목사

거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심히 다툼입니다. 이유인즉 바울은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간 사람이니 미덥지 않다, 그러니 이번에는 데려갈 수 없다 하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하여 견해차가 심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 다투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만일 싸우면서 같이 있었더라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실패작으로 남았을 것입니다(행15:36~41).

성경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1:19)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부부 문제에는 노터치하겠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다투며 같이 일하느니, 같이 사업하느니, 같이 목회하느니 갈라서는 게 낫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가 갈등할 때 서로 갈라서 교회를 하나 더 세웠더니 이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동네가 어찌 바로 서겠습니까(마12:25).

둘째,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기 위해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롯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인지라, 이삭도 양보를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우물을 파는 이삭에 대해 나오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면서 아브라함이 파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샘이 나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우겼습니

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고 순순히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또 다툼이 나자 그 우물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옮겨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오니, 이는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는 뜻으로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다투지 않은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폴라 같은 탄산수는 조금만 흔들어도 펍 하고 터져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생수는 많이 흔들어도 언제나 그대로이지요. 이것에 합당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생수 같은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자갈을 빼내면 옥토가 되듯

그 안에 헐기라는 자갈을 빼낸 사람입니다. 헐기가 많은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욕하며 덤뵙니다. 싸움닭이나 투견처럼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헐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5).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많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리로다”(시37:11).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딤후3:2).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요.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살다보면 화나는 일도, 싸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복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잠19:11)고 하십니다.

개미가 낸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

지혜가 제일입니다(잠4:7). 지혜를 가르쳐드릴까요? 대화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화가 나고, 이것이 다툼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겠랄 얼른 그 자리를 피하세요. 또 화를 잘 내는 자와는 애당초 동행하지 마세요. 같이 있다 보면 다투게 되거든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찌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울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잠22:24~25).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성도를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고, 권면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세요(딤후2:24~25). 아내들도 그 행위를 보고 안 믿는 남편이 ‘나도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할 수 있게끔 온유함으로 가정을 이끄세요(벧전3:1~4). 그러면 싸움 대신 웃음과 행복이 가정에, 기업에, 교회에, 국가에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칼럼 ::

전환의 시대

기후 위기, 생태 위기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상 기온과 재해들이 몰려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인간들의 지나친 탐욕이 쏟아낸 탄소, 플라스틱, 난개발 등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다 못해 역으로 재앙이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을 때, 다스린다는 것에는 적절한 균형과 조절이 필수적이건만 인류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화되자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선진 각국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환경보호라는 구호가 단지 환경단체나 기업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이 곧 경제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향후 수입되는 각국의 공산품을 조사하여 그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력이 탄소가 배출되는, 즉 재생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탄소세란 명목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높여 놓았기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어 신흥국가들이 넘보는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압박도, 유럽 선진국들이 신흥국가들에게 가하는 압박도 이러한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한국 등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극복이라는 이슈를 선점하며 추격자들을 따

돌릴 묘수를 찾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세이고 흐름이기에 대외무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동참할 뿐 아니라 앞서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서가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 속에 필름 사진을 고집했던 코닥이 무너진 것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몰락한 노키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목사님도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참여를 선언하고 여타 대기업들도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코닥이나 노키아처럼 스러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세대를 넘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쳐온 무역장벽들을 우리 스스로 걷어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려면 이 전환의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딤후2:1~2).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너 혼자 해야 해!

여보게!
2006년 인도 뉴델리 집회 때의 일이네. 그 나라는 힌두교의 본산이요, 우리가 집회할 장소는 힌두교에서 개설한 운동장이니 그 집회가 순조로웠겠는가. 집회 전부터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소문, 집회 내내 감시한다는 소문, 또 심하게는 나를 체포한다는 소문까지 퍼졌으니 정말 최악의 상태였다네. 그런데도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네. 그런데 문제가 뜻밖의 발생했네. 10만 명 앞에 처음 서 본 통역관이 경직되어 제대로 통역을 못하고 버벅거리는 거 아닌가. 나는 그에게 “정신 차려. 링에 오르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라고 호통을 쳤네. 그제야 통역관이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야. 그 후로 통역을 제대로 해낸 걸 보면. 권투선수가 늘 코치와 함께 연습을 했어도 막상 링 위에 오르면 혼자 싸워야 하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오직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거야.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공부하지만, 시험 칠 때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나 혼자 시험을 치르지. 그래서 코치가 있을 때, 선생님이 가르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연습하고 공

부해야 한다는 거야.
여보게!
우리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러나 그날 심판대 앞에는 혼자 서야 한대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의지할 수도 없네. 누군가는 나중에 내 옷자락 잡고 천국에 간다고 농담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네. 그날은 주님과 일대일, 독대해야 하는 거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혼자야.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있고, 힘이 되어주는 자가 있고, 가르쳐주는 자가 있을 때 열심히, 심혈을 다해 배우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라네. 열심히 코치와 함께 연습한 권투선수는 혼자 링 위에 서도 당당하고, 열심히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한 자는 혼자 시험장에 들어가도 불안하지 않듯, 목사의 가르침대로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는 그날 주님 앞에 혼자 서도 불안하지 않고 되레 기쁨 테니까.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고 신앙생활도 하거나. D-DAY 때 두렵지 않도록!

봉우

:: 오늘의 메시지 ::

말씀의 울타리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 반응을 실험하기 위해 학교의 울타리를 철거하였다. 그런데 울타리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며 마음껏 뛰어놀았는데, 울타리가 없어지고 나니 운동장 각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중앙에서 웅기종기 모여 놀며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이 실험으로 울타리는 학생들에게 구속이나 억압이 아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며 그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권면한다(잠7:1~2).
여기 ‘지킨다’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지켜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다. 말씀의 울타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

이 아니라 보호하며 참 자유를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시고, 친히 양의 문이 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양으로 구원과 함께, 들며 날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신다(요10:1~10). 다윗 또한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울타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신뢰하고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안에 거하길 힘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시23:4).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잠13:13). 김상욱 목사



:: 낮은 울타리 ::

진실한 신앙

얼마 전부터 서울 대학부에서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흥하려면 새벽기도를 해야 해!’라고 외치신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사님께서 시작하신 새벽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기도로 교단의 부흥은 물론이고 제 스스로의 영적 부흥도 이뤄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 저는 제가 영적으로 놓치고 있던 것들,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진실된 신앙’을 회복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실된 신앙’이라는 말이 참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건데, 도대체 진실된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나만 바라보는 너의 참된 모습이야.’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나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순간들이 꽤 떠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있던 순간들, 예배하는 기쁨보다 다른 기쁨을 더 사모했던 순간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랬던 순간들,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이 더 드러나길 원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진실된 신앙이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된 나의 마음인데,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잿밥에 관심을 가지며 입술로는 주님만 원한다고 고백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끼리 놀이동산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저는 이리저리 둘러보기 바빴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종종 ‘수정아, 손 꼭 잡아. 잘 따라오고 있지? 엄마 잘 보고 와야 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응, 잘 보고 가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말만 그렇지 늘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아주머니를 따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나만 보며 잘 따라오고 있나?’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답변은 무엇입니까? 장수정

돈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 한 부둣가에서 어린 소년이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일본사람뿐이라는 생각에 '한 톨 줌쇼.'라는 말을 일본어로 배우고, 일본사람에게 동냥하다가 우체국장 하야가와를 만나게 됩니다.

하야가와는 소년의 영특함에 반해 우체국으로 데려와 잔심부름을 시키며 사환으로 거두고 지속적으로 소년의 가족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하야가와는 소년을 일본정보학교로 보냈고, 소년 역시 하야가와와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수한 정보원으로 성장한 소년은 일본을 위해 일하게 되는데,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던 독립군의 은신처를 모조리 찾아내며 독립군과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 대량 학살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중 경신참변(1920년)을 다룬 것으로, 이 비극 속에서 돈의 중요한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돈에는 그 주인된 자의 마음과 의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조선인을 말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일본사람의 돈으로 성장한 소년은 그 목적대로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충성스런 소년이 하나님의 사람의 돈으로 성장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로 섬기며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든지, 내가 돈의 노예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롬6:16)고 외치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시인하며 십일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물질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된 자는 돈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충성된 하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쓰여지게 되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병원과 학교를 짓고 배고

픈 조선인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 회개가 불일 듯 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돈의 특성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한 훈련만큼은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이 제 통장에 있는 전부였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빈 통장을 보니 불안해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저의 결심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한을 늦추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막대한 양의 돈이 북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각각 제 주인의 의지를 담은 채 그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겠지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거나 혹은 영혼을 죽이고 또다시 노예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돈들이 더 많이 북한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위상체제에 속아, 갇히고 포로된 북한 사람들이 진정 자유케 되길 소망합니다.

꿈꾸듯 그날이 올 테니 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영신
rubyday0@naver.com

노력이 필요해요

아근을 하거나 저녁에 누굴 만났다가 집에 들어가야 할 때 아내에게 말하면 다 이해를 해준다. 그런데 막상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내의 표정과 말투가 통명스러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야 깨달았다. 이해하는 것과 힘든 것은 별개라는 것을.

최근 아내와 사소한 일로 갈등이 있었고, 또 예민한 첫째 아이와 막무가내인 둘째 아이를 대하는 것이 요즘 좀 어려웠다. 안 되겠다 싶어 유튜브로 이쪽 분야에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 시작했는데, 전문가는 생각과 감정은 다르다고 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는데, 상대가 아이든 어른이든 그 감정을 수용해주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상대의 기질을 인정해주면, 갈등이 최소화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강연에서는 가족끼리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예의와 예쁘게 말하려는 노력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들은 대로 행동에 옮겨보았고, 그 것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예민한 성향의 첫째 아이는 그 기질을 인정해주고 최대한 내 표정과 말투에 신경을 썼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 때 격하게 때를 부리는 둘째 아이는 그 감정을 수용해주고,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려주며 견뎌냈다. 그렇게 하루 이를 계속해서 노력하니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이제는 아파를 매우 좋아한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안다.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감정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노력.

바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노력 말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박찬영 집사

JC ACADEMY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용달샘 ::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축복받은 유다

야곱이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눈에 띄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셋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주겠다는 놀라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한이 어떠한을 아는 우리로서는 ‘장자도 아닌 그가 어떻게 형들을 제쳐두고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였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유다의 행동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두 열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형들의

가슴에 맺혀진 응어리와 울분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요. 결국 형들에 의해 요셉은 애굽(이집트)으로 팔려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의 거짓말로 그때까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도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게 되어, 야곱은 그야말로 애지중지 요셉과 친 형제 간인 베냐민을 키우는 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가 된 지난날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식량을 달라 청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자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하죠. “아버지(야곱) 아이(베냐민)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청컨대 주의 종(유다)으로 아이

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창44:32~33)

유다가 동생 대신 자신이 볼모가 되어 애굽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릴 수 있었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베냐민 대신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자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결국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축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